

군산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협의회와 화합미당 '군산시 사회적경제활동가 네트워크데이'

군산시 사회적경제활동가 네트워크데이

일시 | 2021. 6. 23(수) 10:00 ~ 12:00 | 장소 | 군산시대아리역 앞대자(민생터 오래이다) 대상 | 군산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군산시 협동조합협의회
주최 | 군산시 | 후원 |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群羊

사회적경제
소셜레터
G:un

나지막한 산들과 마을이 어우러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군산(群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우러져
"같이에 가치를 더하는" 군산(群山),

연대와 협동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는
군산의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君羊

Grow : 군산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IssUe : 사회적경제의 이슈와 동향을 담았습니다.

Network: 사회적경제의 핵심 동력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네트워킹합니다.



“자치군산”의 비전아래 “**시민주도의 따뜻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컬러온길

- 2020. 05. 01.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2020. 06. 24.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 2020. 07.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사회적경제조직 자원조사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 2020. 08. 사회적경제 컨설팅 사업 공고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선정
- 2020. 09. 사회적경제기업 실무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경제 읍면동 순회교육
사회적경제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사회혁신 리빙랩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킹데이
- 2020. 11.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사회적경제 활동가 워크숍
사회적경제 비대면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결과발표회
- 2020. 12. 사회적경제 창업·경영아카데미
사회적경제 홍보 동영상 제작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홍보용 달력 및 홍보물 제작

목차

축사	강임준 군산시장	4
	최당현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5
센터 사업 궁금하群	1월~5월 센터 사업	6
	6월~7월 센터 사업	7
사회적경제 알고싶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왜 필요할까?	8
	이현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거는 기대	10
	지규옥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좋은 사람 만났群	김춘학 군산시 협동조합협의회회장	12
	이 호 군산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13
우리 기업 가치있群	인증사회적기업 (유)대한	14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6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 사회적경제 소식지 '소셜레터 군(群)'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군산시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곳곳에서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참여해오신 많은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욱이 이웃들 간의 만남의 시간은 줄어들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담소를 나누기 어려운 시기에 발행되는 소식지는 군산시민 모두를 위한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IMF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 위기 때에도 자본시장과 정부가 돌보지 못한 부분을 메꾸며 성장해 왔고, 선진국의 경우 GDP와 고용 비중이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에도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공적금융 확충, 투자펀드 확대 등의 정책과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북도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전국 최초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군산대 인근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인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90여개 기업에 대해 창업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우선구매를 통해 제품판로를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업은 군산시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주민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소셜레터 群' 발간 취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정보와 사회적경제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및 이슈분석을 통해 소통창구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가치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창간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당현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산 사회적경제의 중심이고 구심인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소식지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하신 센터장 및 직원분들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 군산의 이야기를 소생시키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복원, 사람 냄새나는 도시로 탈바꿈하여 결국 사람을 남기고, 의미 있는 삶을 깨우고자 노력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동료와 당사자 조직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소식지 발간의 타이밍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전국의 관심을 받더니, 엄청난 실직과 위기가 우리 군산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의 명수 등 공동체 연대를 살리는 전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연대와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발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빛나는 노력의 모습을 진정성 있는 소식지로 만들어 주시어 새로운 날들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소식지 발간을 온 맘으로 축하드립니다. 



설 명절 가치드림 장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설 명절 가치드림 장터가 1월 26일 ~27일 2일 간 군산시청 건축심의실(2층)에서 열렸다. 사회적경제기업 9개소가 참여한 이번 장터는 박대, 커피세트, 새우장, 비누세트 등 29개 제품 구성되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가치드림 장터는 군산시청과 동시에 월명동주민센터에서도 전시가 열려 주민센터를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의 기회가 되었다.

제1차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선정



제1차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5팀(공로, 길위의청년학교, 우만, 경사났네, 개복반상회)이 선정되었다. 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 교육(공로), 사회적경제 실천 현장 탐구(길위의청년학교), 여성과 노동읽기(우만), 사회적경제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경사났네), 사회적경제 공정여행(개복반상회) 등의 주제로 선정된 팀에게는 교육비, 교재구입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1차, 2차)



제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3월 5일 14시 온라인 비대면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38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임형택 익산시의회원과 박진영 바이비상 대표의 강연 및 청년사회적경제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제2차 사회적경제정책포럼이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의 주제로 5월 28일 개최되었다. 황영모(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고선미(전주외로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의 강연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방안, 지역자산화 사례를 공유하여 실행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군산시협동조합협의회 발족식



군산시 협동조합협의회 발족식이 3월 25일 군산시 청년몰 청년센터·창업센터 3층 청년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초대회장은 김준학 대표(다이어م 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선출되었다.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각 협동조합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었다. 2020년 구성된 협동조합협의회 추진위원회의 노력의 결실로 탄생한 군산시 협동조합협의회의 발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한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기초과정): 4월 1일과 2일에 진행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신청 시 필수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제도와 절차, 운영 실무 및 사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심화과정): 5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실무역량강화교육으로 군산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가능성,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기업의 회계관리, 사회적가치평가(SVI)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 4. 2(금)~4. 16(금) 모집기간에 신청한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유)아리울수산,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유)아리울푸드, 예비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새싹양정기능원이 선정되었다. 이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 컨설팅 진행 후 6월부터, 온라인 판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 지원사업

치열한 대규모 시장 경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창출과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 지원사업'을 6월부터 진행한다. 공모 결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개소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 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지원 내용은 협업사업화, 협업 마케팅, 협업 네트워크 등이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네트워킹데이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 네트워킹데이가 2021. 6. 2(수)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옆 모과섬터에서 열렸다.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군산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협동조합협의회가 만나 네트워킹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액션리닝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함께 한 기업들은 이후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과 네트워킹을 약속했다.

군산 사회혁신 리빙랩 지원사업

리빙랩은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다. 실생활 및 현장의 사회현상 또는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시민, 공공,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 적용하여 시험해보는 혁신플랫폼이다. 군산 사회혁신 리빙랩 지원사업은 6월 교육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사회문제를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군산시민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이나 사회혁신 아이템 발굴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초기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소셜미션, 아이템 발굴 방법론, 임팩트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등 사회적경제 창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왜 필요할까?



이현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금융위원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란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세습으로 절대 권력과 신분을 물려받았던 군주제·봉건제가 아닌 만인의 평등, 주권재민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일컫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인 의회와 사법기관을 통해 법의 지배를 유지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 그러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여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전직 두 대통령의 실존은 아직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진행형임을 일깨우게 합니다. 어디 정치뿐이었습니까? 경제 역시 마찬가지죠. 박근혜가 당선되었던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핵심 공약은 여, 야 모두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배와 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제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119조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와 기업의 독점 규제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2014년 국회에서 당시 원내대표였

던 유승민 의원이 발의하고 2015년 여야 합의안으로 마련한(국회의원 142명 동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19, 20, 21대 국회에서 2021년까지 8년 동안 11번에 걸쳐 민주당,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정의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21대 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7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할까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합니다. 상위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 사회적경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부처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그대로 전이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이 어렵습니다. 2016.8.17.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

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기본법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대표자가 바뀌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기존 정책을 과감히(?) 내버리곤 하죠? 최근 서울시장이 바뀌자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축소, 폐기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제도는 사회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미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사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 인정하기 위해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개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지원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본법이 없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아쉬운 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미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만 반절만 맞는 말입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에서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기초지자체는 228개 가운데 15개에 불과합니다.

- 서울(6/25) :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도봉구(폐지), 서초구(입법예고)
- 전북(4/14) :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진안군
- 부산(3/15) : 서구, 사하구, 동래구, 기장군(입법예고)
- 경기(1) : 김포시
- 강원(1) : 원주시

비록 17개 광역 지자체 대부분에 기본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황과 밀접한 기초 시·군·구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다수의 단체장과 행정공무원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기본법 제정이 되어있지 않아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치단체장과 행정의 수준에서 관련 법이 없는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회적경제 진영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라북도에는 광역·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제정, 정책 추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북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2018)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2015)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9)
-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2018)
-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6)
-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
-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2020)
-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2021)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등 개별 부문의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를 포함하면 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공동의 기본적인 지원을 명문화할 때 현장에서의 연대와 공동사업은 한층 더 촉발될 수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사회적경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거는 기대

지규옥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들만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고찰해볼 때, 문제 자체는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적어도 형성 과정 중에 있을 때에만 생겨나기 때문이다(말스, 2014). 이는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방안도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하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를 통해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포괄한다. 사회문제의 당사자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는 시민이다. 사회혁신 활동에서 시민의 집합적인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권력의 이동을 수반하며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혁신 과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경제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 방식을 뜻하며, 사회혁신의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른 경제 활동 조직과 달리 혁신 지향성이 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혁신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해결형 사업과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황영모, 2018).



금년 3월 30일 첫삽을 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심이 되어 사회혁신을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 자원이 집적한 혁신 활동 거점 공간으로 구상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민간영역에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실행하게 된 의미있는 결실이다. 더불어 지역적으로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위치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크다. 201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을 스웨덴의 '말뚝의 눈물'에 빗대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말뚝은 조선소가 문을 닫은 후, 기업인, 노조, 정치인, 시민, 대학교수 등이 모여 말뚝의 미래 전략을 수립한 결과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말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역 변화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 혁신, 사회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체가 된 사회혁신의 장(場)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담아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조직공간, 혁신공간, 교육센터, 금융센터, 문화공간 등이 집적하게 된다.

이 공간에서 전라북도, 나아가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의 선두주자로 우뚝서길 바란다.

김춘학 군산시 협동조합 협의회장



군산시 협동조합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수 년 동안 협의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협동조합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협동조합협의회가 있어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추

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협동조합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어요. 협동조합협의회를 발족한 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지난 수년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앞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꾸려지는 협동조합협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당시 협동조합협의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 하셨나요?

–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개념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회복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간조직으로써의 역할이 있듯 당사자 조직의 플랫폼이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고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협동조합협의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군산시 협동조합협의회 발족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군산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되면서 협동

조합협의회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이전에 협동조합 대표님들과 편안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계기로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보자’는 목소리가 모아졌죠. 물론 협동조합협의회 이외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협의회나 전북의 연합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여러 이유로 인해 늦춰지는 상황에서 군산의 협동조합협의회 구성을 활동력이 있는 청년들인 후배들이 먼저 추진하면 기성 선배들이 서포트해 주실 거라 생각했고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협동조합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어요.

협동조합협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협동조합협의회 활동 초반에는 구성원들이 협의체의 본질을 공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의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싶어요. 초기에 기초를 잘 다져야 협의회가 진짜 목소리를 내고 정책 발굴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초기 회장으로 저는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 사업으로 하고 차후 사업은 그 다음 분들이 하시고 저는 구성원으로 함께 해야죠.

군산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와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관내 대학들의 사회적경제학과 개설 등 학(學)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고 민(民)에서 움직임의 결실로 협의회가 구축이 됐고 관(官) 중심의 중간조직도 기틀이 마련됐으니 이 세 영역에서 주기적인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따로 또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영역의 색깔이 잘 어우러져 같이 활동하고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이뤄진다면 군산이 혁신타운이 있는 도시로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요.

군산시 사회적경제 소식지 소셜레터群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소셜레터群은 지속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 호 군산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니 ‘문제공감/해결영역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점검 및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있는 교육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아닌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을까요?

– 지역주민이 선도대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포럼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사회적경제 선도사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대학교 학부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군산시에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본연의 자리인 연구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이고 포럼도 하고 있어요. 그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소셜레터群 소식지에 바라시거나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 학교 입장에서 성공한 사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어 예비 사회적기업가인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셜레터群 소식지가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고 좋은 시작이길 바랍니다. 

올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이 네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요. 군산대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1학기 교육과정을 통해 발굴된 지역 현안문제를 기초로 2학기에는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학기 주제는 Two track으로 진행하는데, 1track은 도시재생 분야로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과 2track은 사회적기업 분야로 실제로 발굴된 지역사회현안문제를 프로토타입의 과정을 거쳐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지역 현안문제, 군산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여름에는 혁신필드라고 해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현장실습도 해보고요. 2학기 때는 사회적경제 리빙랩이라고 해서 1학기 때 발굴된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한 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된 지역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관 및 시민들을 초청하여 시민포럼을 개최함으로써 9개월간의 성과물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군산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군산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참여 학생들의 관련 취업진로 모색 및 창출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이 지역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아무래도 대학은 교육기관이니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의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연계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과 연계를 한다면 군산시,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우리가 발굴한 문제가 정말 방향성이 맞는지, 더 이상 손볼 곳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인증사회적기업 (유) 대한



설 립 연 도	2013. 7. 1.
인 증 연 도	2021. 3. 10.
대 표 자	이현옥
제품서비스내용	소독, 저수조청소, 조경식재공사업, 위생관리청소
주 소	전북 군산시 서수송1길 39
전 화 번 호	063 - 451- 8046

사회적기업 (유)대한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희 기업은 2013년 7월 1일 법인 설립, 2019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학교와 관공서, 군부대 위주로 소독·청소 사업을 하고 2019년 12월부터 조경식재공사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요. 현재 근로자는 9명인데 그중 취약계층은 4명이에요. 조경식재 사업으로 '나무병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로자 고용이 필요하면 취약계층을 고용할 계획이에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셨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을 할 때 일자리 제공 범위가 좁아 취약계층 고용이 쉽지 않고 관공서에서도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기회와 혜택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준비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제공 사업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현옥 (유)대한 이현옥 대표

대한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사업 방향이 있을까요?

- 치매 환자나 독거노인 가정의 청소를 해드려요. 일반 청소업체가 하기 어려운 정도로 쓰레기와 폐기물 등 처리가 힘든 상태가 많아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가장 시급한 곳이라 생각해요.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매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유)대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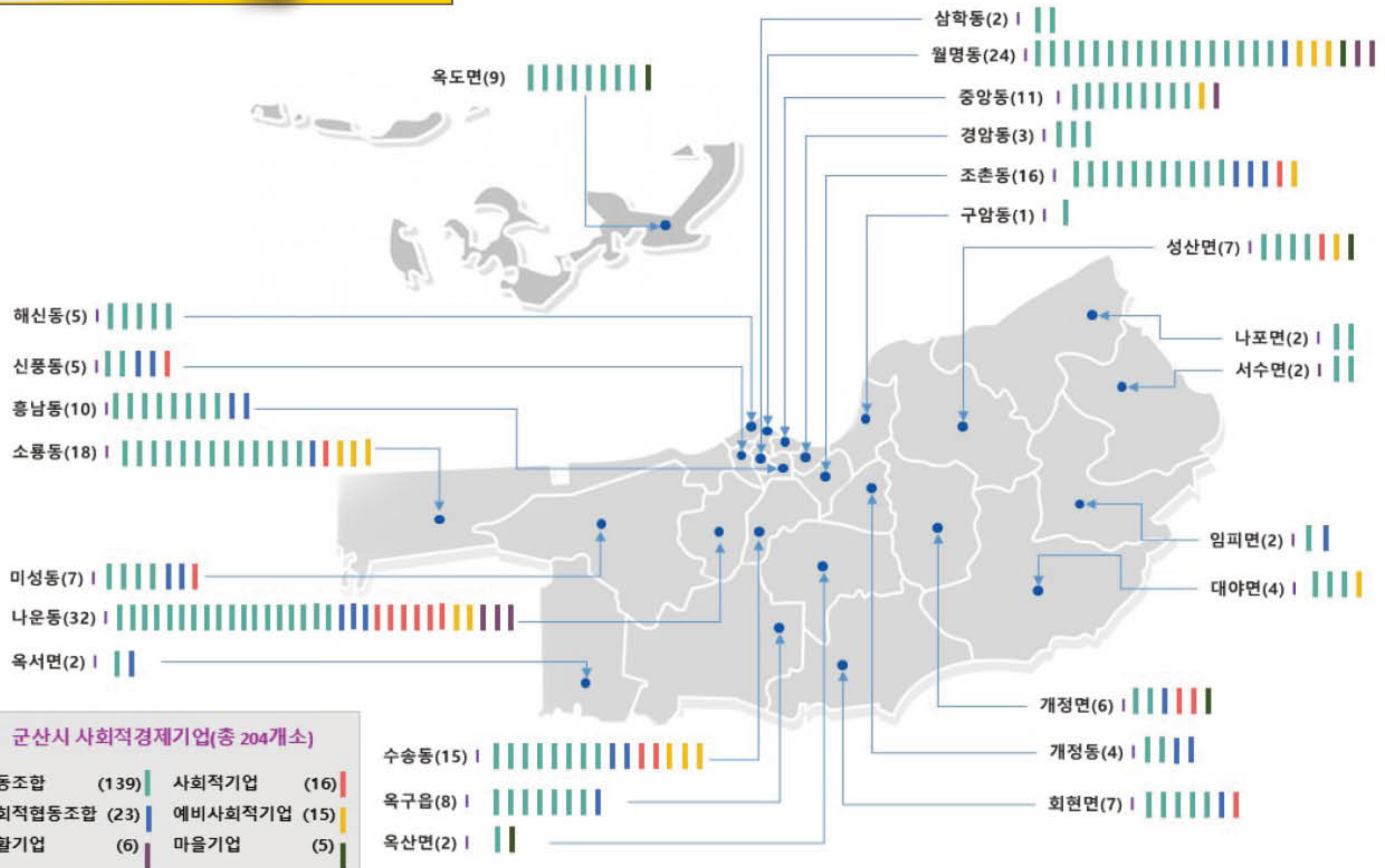
- 올해 목표는 '나무병원'이에요. 나무병원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수목 관리가 2023년에 법이 제도화되면 일반인이나 업체는 나무에 약을 주지 못하고 나무병원에서만 약을 줄 수 있게 돼요. 아파트나 공공기관의 공원과 가로수의 병충해 방지,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무 의사와 수목관리 치료사 준비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군산시 사회적경제 소식지 소셜레터群, 또는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 센터 진행 사업으로 기업 간의 네트워크 기회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이 많아지길 바라요. 사회적기업 인·지정 교육이나 회계·세무 또는 마케팅 교육이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고 싶어요.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GunSan Social Economy Center

☎ 군산시 중정길 8-1
☎ 063. 443. 5437
🌐 gunsansec.or.kr
✉ gsec20205@gmail.com